

퓨처켄 자회사 퓨처켄 헬스케어, 고신대병원 GMP 인증 완료!

▶ 서울성모병원 이어 고신대 GMP인증... 방사성의약품의 영남권 유통 기반 구축

<2020-06-22>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켄(220100, 대표이사 지대윤)은 자회사 퓨처켄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산 고신대병원 내 생산시설에 대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퓨처켄은 총 세 곳의 GMP 인증 시설을 두게 됐다. 현재 퓨처켄은 동아대병원에, 퓨처켄헬스케어는 서울성모병원에 각각 GMP 인증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신대병원은 6개의 최신 차폐시설을 두고 있어, 이번 GMP 인증을 통해 퓨처켄이 부산 영남권 지역에 암진단 FDG 의약품과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방사성의약품까지 직접 제조, 판매할 기반이 갖춰졌다.

퓨처켄헬스케어는 경북대병원 생산시설 역시 GM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퓨처켄 관계자는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시설은 방사성의약품 유통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성모병원이 GMP 규격의 생산시설 구축 후 흑자로 전환된 것처럼 고신대병원도 하반기 본격 가동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